

서울지역 일개 초등학교 4, 5, 6학년 남녀 학생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

이화진, 이은택, 박지빈, 이선영, 김성원, 강재현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명백한 식이장애는 아니더라도 식이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젊은 여성에서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에서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이 12.2%로 높게 나타났다. 이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생들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과 식이장애 선별검사(screening test)인 한국어판 소아용 식이태도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2002년 7월, 서울시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4, 5, 6학년의 총 21개 반을 대상(총 897명)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. 식이장애의 검사도구는 Garner와 Garfinkel의 식이태도검사-26(이하 EAT-26)을 Michael 등²¹⁾이 소아용으로 고안한 설문지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고, 총 78점 중 20점이상을 식이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. 한국어판 소아용 식이태도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구하였고 검사-재검사 신뢰도를 보기 위해 2주 후에 총 259명에게 재검사(retest)를 실시하였다.

결과: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99.5%(총 897명 중 893명)이었고,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511명(99.4%)와 382명(99.7%)이었다. 평균 연령은 10.3 ± 0.9 세이었고, 체질량지수(body mass)는 남학생이 평균 $19.2 \pm 3.0 \text{ kg/m}^2$, 여학생이 평균 $18.3 \pm 2.7 \text{ kg/m}^2$ 이었다. 현재 체형보다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학생은 남학생이 18.0%, 여학생은 19.5%으로 여학생들의 체형 불만족(body dissatisfaction) 정도가 더 높았다. 체중 조절(Diet)의 경험은 남학생이 23.4%, 여학생이 29.5%이었다. 한국어판 소아용 식이태도검사의 평균 점수는 남녀 학생이 각각 11.74 ± 8.74 점과 12.77 ± 8.55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, 식이장애 고위험군은 남학생이 15.1%(411명 중 62명), 여학생은 17.7%(322명 중 57명)이었다. 식이장애 고위험군은 남녀 모두에서 정상군보다 체형 불만족 정도가 더 높았다(4.28 ± 0.9 대 3.73 ± 1.1 : $P < 0.0001$, 0.62 ± 1.0 대 1.05 ± 1.3 : $P < 0.05$). 체중 조절 경험도 식이장애 고위험군이 정상군보다 많았다(남학생 28.3% 대 19.4%: $P < 0.0001$, 여학생 53.6% 대 24.1%: $P < 0.0001$). 한국어판 소아용 식이태도검사의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's alpha는 0.76이며, 검사-재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0.767($P < 0.0001$)이었다.

결론: 한국어판 소아용 식이태도검사를 이용한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 조사에서 서울지역의 일개 초등학교 4, 5, 6학년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은 16.2%이었으며, 남녀 학생 각각의 유병률은 15.1%와 17.7%로 나타났다.

중심단어: 한국어판 소아용 식이태도검사(EAT-26), 식이장애, 식이장애 고위험군, 유병률, 신뢰도